

장 혜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우리원은 지난해 한경비즈니스에서 실시한 2008년 ‘한국을 움직이는 100대 싱크 탱크’ 올해의 여성·노동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그동안 우리원이 여성·노동과 관련하여 수행해온 정책연구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정책연구기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결과이기도 하였다.

젠더리뷰, 이러한 열매에 힘입어 2009년 새로운 포문을 열었다. 작은 꽃망울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한껏 준비하고 있는 이 봄에, 젠더리뷰는 우리사회의 핵심 여성정책 이슈들로 그 맵시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봄호에서는 여성을 위한 일자리, 친권법, 여성의 안전, 대중매체 속에 나타난 가족 진단 등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내용들을 담았다. 이러한 글들은 독자들이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이웃의 삶을 조명해볼 수 있게 함으로써 분명,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나가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9년에도 젠더리뷰의 힘찬 도약과 발전을 위해 파이팅!